
2022년 제17호 방송심의보고서

2022. 4. 22. ~ 4. 28.



한국정책방송원
KTV 국민방송

프로그램	특특 사이다경제		
방송일자	2022. 4. 22.	시청률	0.000

【총 평】

‘경제&이슈’에서는 지난 19일 공식 출범한 국내 첫 특별지자체 부산-울산-경남의 부울경 메가시티의 의의, 필요성, 설치배경, 추진 경과, 기대효과, 정착 과제 등을 분야별로 살펴 보았다. 지역을 광역으로 연결하는 특별연합이 어떤 효과를 가져 오는지를 분석한 부분이 당위성을 높였다. 수도권 집중 완화, 지역 주도 균형발전 도모, 교육 교통 인프라 구축으로 시너지 효과 등 긍정적 효과를 제시했다.

최근 최대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생산자물가지수의 상승 원인과 배경을 살펴보고 이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했다. 금융감독원의 ‘숨은 금융자산찾기 캠페인’ 기간에 맞춰 기획된 ‘잠자는 내돈 찾아가세요.’는 시청자 만족도를 높였다.

【구성 및 내용】

‘부울경 특별연합’은 부산, 울산, 경남이 하나로 뭉쳐서 같이 행정을 해나가고, 현안을 처리해 나가는 것이다. 부산, 울산, 경남은 따로 존재하지만 3지역을 관통하는 고속도로나 해외기업을 유치할 때 지역이 협력해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도로, 항만, 철도 등을 건설할 때 중앙정부의 간섭 없이 지방정부에서 더 빨리 더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지방의 시대와 국토균형발전 시대를 여는 중대한 열쇠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가 수도권 하나로 집중되어 있는 것이다. 수도권 제재하는 것은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지방을 본격적으로 육성 발전시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들끼리 연합을 해서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주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하자는 면에서 주목을 끌어 왔다. 부울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부울경 특별연합을 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일본은 광역 단체를 합친 특별연합이 100개가 넘는다. 우리나라는 이제 시작이다. 정부의 확고한 정책 지원 의지도 있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발전의 모멘텀이나 협력분위기가 있어 빨리 정착되리라 본다. 시도 경계를 넘나드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초광역 교통망을 효과적으로 구축하고, 산업기반을 공동으로 활성화 할 수 있어 지방이 발전하고 국토균형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중앙정부 업무를 특별지자체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 위임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서울로 안가도 되고, 현안을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미래차, 친환경성장산업 등은 새로 시작을 해야 하는 산업을 특별지자체를 활용해 추진하면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부울경 특별연합의 출범으로 2040년까지 인구가 776만 명이 1,000만 명으로 늘어나고, 지역내총생산도 275조 원에서 491조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른 지역도 이런 식으로 지방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데 부울경이 선도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프로그램	국민리포트		
방송일자	2022. 4. 22.	시청률	0.000

【총 평】

"색깔로 구분해요" 신호등 분리수거대 설치, "플라스틱 No!" 케이팝 팬도 나섰다, "건강·환경 지켜요" 다문화 청소년과 함께 플로킹 등 환경의 중요성을 생각하는 내용을 연속 배치해 몰입감을 높였다. 이밖에 사라진 문화유산, '그림'으로 다시 태어나다, 창경궁 거닐며 '나무 해설 프로그램' 인기 등 문화체험 소식을 전했다. 또 음악으로 장애 극복, 기타리스트는 전국 275개 학교에서 '도전은 희망이다' 스토리텔링 콘서트를 열고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 폐막식 무대에도 섰던 기타리스트의 이야기를 소개했고, 다양한 창작 실험 공간 '청년예술청' 기지개는 청년 예술인의 열정과 도전을 돕는 지원 정책을 전했다.

【구성 및 내용】

- "색깔로 구분해요" 신호등 분리수거대 설치
충주시는 올바른 분리 배출을 돕기 위한 '신호등 분리수거대'를 설치했다. 초록색 그물망에는 캔과 플라스틱, 노란색 그물망에는 비닐, 빨간색 그물망에는 투명 페트병을, 각각 버리도록 했다. 주민들이 쉽게 분리 배출할 수 있고 설치비도 저렴하다.
- "플라스틱 No!" 케이팝 팬도 나섰다.
아이돌 가수를 응원하기 위해 음반 구입과 팬덤형 소비도 늘어나면서 방치된 CD의 폐기처분이 문제가 되고 있다. 케이팝 팬들은 좋아하는 가수의 이름으로 숲을 조성하거나 모금활동을 하는 등 사회에 도움을 주는 성숙한 팬덤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 "건강·환경 지켜요" 다문화 청소년과 함께 플로킹
다문화 청소년들이 징검다리, 독방길 여기저기를 옮겨 다니며, 조깅하면서 쓰레기도 줍는 '플로킹(plogging)'을 실천하고 있다. 2050년쯤이면 사회의 주인공이 되는 다문화 청소년들은 지구촌 환경을 지키는데 모두의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 음악으로 장애 극복, 기타리스트 김지희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은 ○○○ 양에게 기타는 세상과 소통하는 길이다. '장애인식개선 공연 프로젝트 미'는 4월 20일 장애인 날을 맞이하여 기획되었다. 장애인이라는 편견 없이 음악으로 표현하는 나, 아티스트로서의 나와 소통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 다양한 창작 실험 공간 '청년예술청' 기지개
청년 예술청은 청년 예술인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1층 중심부에는 40명까지 이용 가능한 '카페형 공유 오피스'도 있고, 청년 예술인들의 다양한 활동, 다양한 전시와 실험이 이뤄지며,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사라진 문화유산, '그림'으로 다시 태어나다
오랜 세월 속에 훼손되거나 문헌으로만 남아있는 문화유산들을 원형 그림 안내판 또는 첨단 기술을 접목한 실감 영상으로 복원해 관광객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프로그램	KTV 특집 문재인 정부 5년의 기록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방송일자	2022. 4. 22.	시청률	0.009

【총 평】

“문재인 정부5년의 기록 ‘아직도 흔들 수 없는 나라’ 결정적 순간들”편에서는 지난 5년간 기억에 남는 인상 깊었던 순간들을 영상과 인터뷰 구성으로 소개했다. 한반도 군사적 긴장과 이를 해소한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으로부터 코로나 확산을 막아낸 K-방역, 방산 수출 개가, 세계 7번째 가입 한 30-50클럽 등 문재인 정부 5년을 결산했다.

일본의 수출품목 규제에 단호히 맞서 이를 극복한 대통령, 코로나와 자연재난 국가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대통령, 실리외교로 외교지평을 넓힌 대통령 등 대통령의 참모습을 잘 표현해내 메시지 전달력을 높였다. 5.18 유족을 포옹하며 흘린 대통령의 눈물, 치료비 걱정을 덜어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청년일자리 마련에 노심초사하는 대통령 등 ‘인간 문재인’을 조명한 모습이 국민들에게 감성 요소를 전달했다.

이밖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일자리 창출과 포용국가 지향, 한국판 뉴딜 선언 등에 힘쓰는 모습 등을 언급해 국민의 공감도를 높였다. 특히 쉽없이 달려온 5년, 겸손과 품격있는 정부, 국민의 아픔을 치유한 정부, 선진국 도약의 자부심을 심어준 정부 등 5년의 기록을 정리하는 마무리 메시지가 깊은 여운을 남겼다.

【구성 및 내용】

KTV 특집 ‘문재인 정부 5년의 기록 - 결정적 순간들’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 중요한 순간들을 효과 높게 전달했다. 북한과의 관계, 국민청원, 일자리 창출, 혁신적 포용국가, 일본 보복조치와 소부장 국산화, 한진해운 파산과 해운업의 위기, 자연재해 및 소방직 국가직화, 코로나19 대응, 한국판뉴딜 정책, 신남방정책, 국방력강화 등 역사적인 순간들을 소개했다.

북한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취임 당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 평균 한 달에 한 번씩 이어지고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만연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발표하고 한반도의 긴장완화 달성을 위해 독립적이고 주체적으로 추진했다. 이후 2018년 4월 27일 김정은 위원장과의 판문점 회담이 성사되었다.

국민청원제도는 국민의 억울한 점은 그간 사법부를 통해서 해결했어야 했는데 온라인 국민청원을 통해 억울함을 해소하고 특정 이슈에 공감하는 사람들의 힘을 합해 목소리를 내는 창구가 마련되었다. 또 일자리 문제에서 그간 불공정한 노동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추진했다.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달장애인 가족을 초대해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밖에 소방직 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했고 소방관의 처우가 개선되었다.

국격부분은 2021년 6월 11일 G7 정상회의에 한국이 초청되면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고 UN의 국가등급에서도 선진국 그룹으로 옮겼다. 세계 6개국이던 3050클럽에 포함되었다.

프로그램	한류에 빠지다 K컬처TV		
방송일자	2022. 4. 23.	시청률	0.030

【총 평】

‘세계를 휩쓴 K-비보잉’편에서는 2022년 열리는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비보잉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것을 기념해 비보잉 크루 ‘퓨전 엠씨’의 단장과 얘기를 나누었다. 2002년에 결성된 ‘퓨전 엠씨’는 12명 전원이 프로 비보이, 비결로 활동 중이며 한국 최초 비보잉 국가대표 김종호 선수를 배출했다. 2022년 항저우 아시안 게임과 2024년 파리 올림픽 출전을 준비하고 있으며, 그동안 세계비보이 대회에서 40여 차례 우승했다. 퓨전 엠씨는 한류 문화예술 교류단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K-비보잉을 알리기 위해 다채로운 해외공연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의 2018년 전문예술단체로 지정돼 문화 소외 계층을 위한 재능 나눔 사업과 글로벌 한류공연 콘텐츠 보급에 힘을 쏟고 있다.

‘한국을 달리는 챔보의 V로그’는 미국 오리건주에 사는 존의 사연으로 한국의 싱싱한 해산물을 즐긴 추억을 전하며 수산시장을 소개해 달라는 요청했다. 인천의 소래포구를 찾아 주꾸미 등 제철 해산물과 싱싱한 회를 구입해 인근 식당에서 시식했다.

【구성 및 내용】

2022년 열리는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비보잉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다. 김종호 국가대표를 배출한 비보잉 크루 ‘퓨전 엠씨’의 황정우 단장이 출연했다. 황단장은 2002년에 결성된 ‘퓨전 엠씨’에 대해서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비보잉이 세계에서 인정받게 된 배경 등 비보잉에 대해 설명했다. 진행자들과 간단한 안무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는데, 대표 동작 시연과 배워보기 등을 통해 어렵다고 생각되는 비보잉을 친숙해 질 수 있었다. 특히 비보잉 활동에 대해서 풍부한 자료 화면을 제공해 비보잉을 잘 알지 못하는 시청자들에게도 인식 전환이 시간이 되었다. 비보잉은 1970년대 초반 미국 뉴욕의 흑인 젊은이들 사이에서 발생한 스트리트 댄스의 한 종류이다.

‘퓨전엠씨’는 세계 최정상이 되기까지 10평 남짓한 지하단칸방에서 춤을 연습하고 여름엔 선풍기도 없이 춤 연습에 매진해 인정받는 비보잉 댄서가 되기까지 많은 우역곡절을 겪었다. 이제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2024년 파리 올림픽 정식 종목에 도전한다.

‘퓨전 엠씨’는 세계대회에 출전하여 퍼포먼스를 시연하고 있는데, 2019년 대만 ‘TAIPEI B-BOY CITY’ 월드파이널에서 일본을 꺾고 우승했다. 또한, K-비보잉을 알리기 위해 해외공연단으로 활동하고 있다. 2009년 한국관광공사 주최 태국 코리아 페스티벌을 시작으로 2020년 탄자니아 문화예술 국제교류 파견단으로 공연했고,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주최로 두바이, 캐나다, 독일, 가봉, 호주, 요르단 등 문화 행사에 참가해서 K-비보잉을 선보였다. 이밖에 의정부시 대표 비보이단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경기도의 2018년 전문예술단체로 브레이킹 문화를 알리고, 문화소외 계층을 위한 재능 나눔 사업 및 글로벌 한류 공연 콘텐츠 보급에 힘을 쏟고 있다.

프로그램	살어리랏다		
방송일자	2022. 4. 23.	시청률	0.079

【총 평】

‘진짜로 이루어질지도 몰라 소원’편에서는 외딴 숲에서 60대 안팎 부부가 전원생활, 숲속의 책방을 운영하며 긍정의 메시지로 살아가는 귀촌생활을 담아내 소확행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다. 특히 동화 속 곤충을 상정해 ‘아냐벌레’가 걱정 근심을 먹여치우고 ‘오냐나무’에서 소원을 빌면 그대로 이뤄진다는 믿음을 부부가 전파하는 대목이 ‘행복바이러스’, ‘긍정바이러스’ 측면에서 인상적이었다. 출판사 운영을 했던 남편과 동화작가인 부인이 숲속에 책방을 열고 스스로 독서의 기쁨을 누리고 남편이 발효밀가루 화덕빵을 만들어 손님에게 제공하는 일상이 여유를 느끼게 했다. 강원도 원주 인근 터득골 전경, 바람의 노래 영롱한 종소리, 나뭇가지 치고 텃밭 일구는 부부의 모습, 숲속 길, 발효밀가루 화덕빵 만드는 모습 등이 부부의 꾸밈없는 전원생활의 여유로움을 부각했다.

【구성 및 내용】

강원도 원주시 터득골에 귀촌해 책방을 운영하는 나무선, 이효담 부부의 이야기를 담았다. 귀촌 18년차 나무선 씨는 바람이 불어 종이 울리는 소리를 즐기며 아침을 맞이하고, 운영하고 있는 책방을 소개하며 집에 대한 본인만의 철학을 이야기하고 있다. 도심에서 출판사를 운영하며 다양한 책을 만들어 온 남편과 동화작가인 아내는 서재에서 단들이 책을 읽다가 5년 전부터는 다함께 책을 읽기로 결정하고 책방을 열었다. 부부의 취향과 삶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책방과 자연과 함께하는 시골살이의 간소화된 삶의 방식은 자연에서 배운 삶의 태도를 실천하며 살고 있다.

매일 아침 나무선 씨는 부부가 이름 지은 숲속길인 ‘오냐로드’로 향한다. ‘오냐로드’는 근심 걱정을 잊게 해주고, 용기를 주는 길이라는 의미다. 길 끝 오두막에 다다르면 마음을 모아 종을 치며 자기만의 의식을 치른다. 나무선 씨는 부인 이효담 씨가 집필한 ‘오냐나무’라는 그림책을 터득골의 영혼 같은 생각으로 느껴지는 책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효담 씨는 사람들의 근심과 걱정을 먹여 없애 주는 ‘아냐벌레’라는 캐릭터를 만들었다. 아냐벌레는 어느새 숲속책방의 마스코트가 되었다. 방문객들은 오냐카드에 소원을 쓰고 오냐로드를 걸어 오두막에 도착해 소원을 이야기 한다. 지난 5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오냐나무를 만나며 벅찬 즐거움을, 아련했던 꿈을, 제2의 삶을 열매 맺었다.

나무선 씨는 아냐벌레를 컨셉으로 빵을 디자인 했다. 오냐빵은 소원이 이루어지는 빵, 아냐빵은 두려움을 먹여치우는 빵을 개발할 계획이다. 나무선 씨는 발효밀가루를 이용해 자연주의 빵을 만드는 실험을 하고 있다. 비탈진 화전민터에 책방을 낸다는 것은 무모한 도전이었지만 부부의 책방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부부는 지역의 최적화된 멘토나 스승들과 실무적인 연관을 가진 토론이나 공부 학교를 만들고 도서관을 같이 겸할 수 있는 공간을 구상하고 있다.

프로그램	여러분의 북마크		
방송일자	2022. 4. 24.	시청률	0.154

【총 평】

‘친북’에서는 지난 2월 북한노동당 대회와 4월 13일 평양 보통강 강변 다락식 주택구 준공식, 4월 15일 김일성 생일 110주년 기념 중앙보고대회에서 김여정 부부장과 현송월 부부장을 대신해 김정은 위원장을 밀착 수행한 새로운 수행비서의 등장을 통해 북한의 변화하는 내부 동향을 알아보았다. 특히 북한 최고지도자의 지근거리 수행인이라면 당간부와는 차원이 다른 북한 내 ‘문고리 권력’으로 새로운 인물이 10년 만에 등장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파격적인 행보를 고려했을 때 친인척이거나 가족일 수 있고, 배지를 달지 않아도 되는 인물은 매우 중요한 위치의 인물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슈텔링’은 체육을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북한의 봄 운동회를 소개했는데, 소총 들고 달리기, 모형 수류탄 던지기 등 우리와 다른 운동 종목이 눈길을 끌었다.

【구성 및 내용】

최근 북한의 신형무기 시험발사 소식 못지 않게 관심을 끈 핫이슈는 김정은 위원장을 수행하는 새로운 여성의 등장을 통해 북한의 동향을 읽을 수 있었다. 최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신형전술유도무기 시험발사 참관, 금강산 골프장 해체, 김일성 생일 110주년 기념 중앙보고 대회까지 한반도 정세의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김 위원장이 공개 활동에 나설 때마다 지근거리에서 의견을 도맡는 자리에 현송월 노동당 부부장과 김여정 부부장이 아닌 새로운 얼굴이 등장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이 여성이 가슴에 김일성·김정일 초상휘장을 달지 않았는데, 공식적인 자리에서 초상휘장을 달지 않을 수 있는 신분은 김정은 위원장의 최측근뿐이다. 따라서 새로운 여성의 신분이 김정은 위원장의 친인척일 가능성과 현송월 부부장의 부사수급 인물로 정상적인 인사시스템이 가동된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슈텔링’은 북한의 봄 체육대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체육 활동을 통해서 주체 사상을 교육하고 건강한 신체를 만들어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북한 정책이다. 북한 주민들이 체육에 진심인 것은 국가 정책이기 때문이다. 규율과 집단주의, 애국심을 고취 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로 체육이 이용되고 있다. 특히 소총 들고 달리기, 모형 수류탄 던지기 등 우리와 다른 북한의 운동 종목이 주목을 끌었다. 운동회의 꽃인 도시락을 예전에는 싸 올 수 있는 학생이 한 반에 두세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거의 싸 오는 상황이다. 도시락에서 빈부 격차가 느껴지기 때문에 어린 학생들의 마음에 상처가 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북한에서는 학생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체육대회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승을 위해서 운동선수를 직원으로 채용해 선수로만 활동하게 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또 우승을 위해서 치밀한 전략과 기술을 동원하는 모습이 일상적이다.

프로그램	한국판 뉴딜 나의 뉴딜		
방송일자	2022. 4. 24.	시청률	0.000

【총 평】

‘바다환경을 지키는 사회적 기업’편에서는 평범한 주부들이 바다환경 보호를 위해 창업한 사회적 기업의 운영 사례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환경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바다환경 보호가 왜 필요한지를 살펴보았다. 특히 바다환경을 지키는 사회적 기업의 사례를 통해 그린뉴딜 사업 지원이 현장에서 어떤 효과를 내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었다. 또 버려지는 쓰레기로 바다환경이 오염되는 문제를 부각해 바다환경 보호에 대한 캠페인 효과와 업사이클링 사례를 소개해 재활용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이밖에 경력단절 마을 주부들이 환경보호에 뜻을 모아 창업하고, 사회공헌을 통해 보람을 찾는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전 업주부들에게 취업과 사회봉사 성취동기를 부여한 점도 유의미했다.

【구성 및 내용】

‘바다환경을 지키는 사회적 기업’편은 환경보호의 중요성과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실천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한 구성이 돋보였다. 특히 환경교육에서 중요한 건 환경감수성이며 환경감수성을 키워주기 위해 집 앞 텃밭에서 채소를 직접 키우고, 자라나는 모습을 지켜보며 환경의 소중함을 느끼게 해준다는 메시지를 부각시켜 흡입력을 높였다.

유치원생과 가족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진행하는 아이바다협동조합은 아이처럼 깨끗한 바다를 물려주는 기업이 되자는 의미로 회사이름을 명명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통해 아이들의 이해도와 집중도를 제고하고 있다. 아이바다협동조합은 바다환경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설립했다. 아이바다 협동조합 양승희 대표는 바다를 좋아하는 아이들과 바다에서 놀았는데 어느 순간 바다쓰레기로 인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오염된 것을 보고 전업주부에서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주기 위해 환경교육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환경 교육 예비사회적기업 창업에 성공한 아이바다협동조합은 총 3명이 환경 교육 기업을 꾸려가고 있으며, 통영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폐조선소를 리모델링해 공공창업지원공간으로 쓰고 있는 ‘통영 리스타드플랫폼’에 선정되어 사무실을 차렸다. 지난해 4월 ‘경상남도 그린뉴딜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선정되어 2,600만 원을 지원받았고 아이들을 위한 환경 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교구재를 구입해 다양한 교육을 실현시킬 수 있었다. 유치원 아이들은 노래와 율동으로 교육하는 게 효과가 높다고 판단해 환경동요를 직접 만들어 수업하고 있다.

양 대표는 환경교육을 하다보면 어른보다 어린이들이 훨씬 환경에 관심이 많으며, 아는 것은 반드시 실천한다고 한다. 그래서 교육이 희망적이라고 생각해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좌절하고 있을 때 그린뉴딜 사업비를 지원받아 돌파구를 만들 수 있었다”며 ‘한국판 뉴딜’이 꿈과 열정을 지켜준 원동력이 되어 주었다는 양승희 대표의 말에서 한국판뉴딜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다.

프로그램	PD리포트 이슈 본(本)		
방송일자	2022. 4. 24.	시청률	0.001

【총 평】

스마트폰 사진 한 장으로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티티케어 서비스’와 이륜차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 ‘라이더 로그’을 소개했다. 특히 ‘티티케어 서비스’는 정부 지원으로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을 확장하면서 진단 가능한 병증 확대 및 정확도가 향상되었다는 설명을 통해 정부 지원 정책의 중요성을 알려주었다. 이륜차 전용 안전 진단 시스템인 ‘라이더 로그’는 라이더들의 안전 운전을 유도하고 보험료 인하의 선순환 구조를 실현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티티케어 서비스’와 ‘라이더 로그’는 생활 밀착형이며, 즉각적으로 유익한 결과물을 내는 기술 개발이었다.

【구성 및 내용】

반려동물 양육이 1500만 시대에 접어든 요즘,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펫 케어 서비스가 활발해지고 있다. ‘티티케어 서비스’는 반려동물 건강관리 기업 에이아이포펫(AIFORPET)이 개발한 서비스로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반려동물의 건강을 체크할 수 있다. 휴대전화로 반려동물의 눈이나 피부를 촬영하면 50만 장 이상의 질병 데이터를 학습한 인공지능이 질병 발생 여부와 위험도를 알려주는 앱이다. 특히 국내 최초로 영상진단 보조 소프트웨어 동물용 의료기기 품목 허가를 받았다. 거대자료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티티케어’ 서비스는 다양하고 많은 양의 데이터 축적이 중요한 만큼 과기정통부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을 통해 기존 인공지능 모델 성능을 개선, 반려견의 안검내반 증상과 각막혼탁 증상의 판별 정확도를 높였다. 또한 상대적으로 반려동물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유기견 보호센터는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사회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매년 이륜차 사고가 급증하면서 최근 3년 간 이륜차 교통사고 건수는 10% 이상 증가했고, 사망자 수는 12.2% 증가했다. 일반적인 차량에 비해서 환자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안전 장비가 없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 대부분 사망으로 이르게 되거나 치명적인 손상을 받은 경우가 매우 높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배달 서비스가 늘어난 요즘, 배달 라이더들의 안전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이륜차 안전운행 문화 정착을 위해서 인공지능(AI) 관제 시스템 ‘라이더로그’가 개발되었다. (주)별따러가자가 개발한 라이더로그는 오토바이·자전거·킥보드 등의 사고 예방부터 사고 발생 시 실시간 대응, 사후 분석을 제공하는 이륜차 전용 안전 주행 솔루션이다. 개인별 운전 습관과 개선점을 찾아내 안전운전을 유도하고, 실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동 응급 구조 알림(E-Call)이 작동해 사고 상황을 3차원으로 재현할 수 있어 사고 상황은 물론 사고 원인 분석에 대처할 수 있다.

한국배달라이더협회 안산단원지부에서는 라이더로그를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라이더들의 안전운전 교육서로 활용하고 있다, 안전운전 점수 체계를 구축해 안전운전을 하는 라이더는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구조로 완성할 계획이다.